

■ 한라일보-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생명 나눔 캠페인' 협약... 오늘 장기 기증의 날

“장기 기증은 세상을 바꾸는 약속입니다”

후원금 모아 환자 지원
기증 분위기 조성 노력
감동 선사 주인공 소개

매년 9월 9일은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정한 '장기 기증의 날'이다. 심장 하나, 폐장 두개, 간장 하나, 신장 두개, 췌장 하나, 각막 두개 등 9개의 장기로 9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의미에서 9월 9일을 장기 기증의 날로 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장기 기증 문화 확산에 뛰어든 곳이다. 제주도는 지난 2012년 1월 '장기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자체 중 처음으로 9월 9일을 장기 기증의 날로 정했다. 이후 장기 기증의 날을 정하는 지자체가 대전, 광주, 강원 태백시 등으로 점차 확산했다.

장기 기증의 날을 하루 앞둔 8일 한라일보와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생명 나눔 문화 확산에 힘을 보태기 위해 손을 잡았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와 한라



박진택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이사장(왼쪽)과 한라일보 이용근 대표이사가 생명 나눔 캠페인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일보는 장기 기증을 실천한 이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보내고,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에게 새생명의 희망을 주고자 '세상을 바꾸는 약속, 장기 기증' 주제 아래, 생명 나눔 캠페인을 공동 진행하는 내용의 협약을 했다. 운동본부와 한라일보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양측

이 모이지 않고 '비대면'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양측은 후원금을 공동 모금해 제주 라파의 집 환자 지원에 나선다. 라파의 집은 하루 하루 혈액투석기 줄에 의지해 생명을 이어가는 만성신부전 환자들을 지원하는 곳으로 서귀포시에 있다.

또 한라일보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제주도 장기 기증 현황, 장기 기증인의 이야기 등을 기사로 소개해 보다 많은 도민들이 장기 기증 운동에 동참할 수 있게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한다.

박진택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이사장은 “장기 기증 운동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준 한라일보에 감사하다”며 “이 협약이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한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미국에서 뇌사 장기기증을 실천해 6명의 생명을 구한 제주 소녀 고 김유나 양부터, 올해 4월 장기를 기증한 휘파람 소년 고 고희준 군까지 제주도에 큰 감동을 선사한 생명나눔의 주인공들이 참 많았다”며 “앞으로 이런 사연들이 더 널리 알려져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용근 한라일보 대표이사는 “장기 기증은 인간으로서 존엄의 가치를 추구하는 일로, 언론사가 이런 생명 나눔 운동에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면서 “협약을 계기로 장기 기증 문화가 더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태종 물러간 제주섬... 천고마비 계절이 오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물러간 뒤 구름 한점 없는 맑은 날을 보인 8일 제주시 제주마방목지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조랑말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다.

도내 학교체육시설 내년 2월까지 '빚장'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이뤄진 학교체육시설 차단이 내년 2월까지 이어진다.

제주도교육청은 학교 현장과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등 학교체육시설을 내년 2월까지 개방하지 않기로 했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23일 도교육청은 코로나19 대응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학교체육시설의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

도내 학교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체육관 145곳, 운동장 191곳, 수영장 7곳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감염병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체육시설의 외부인 사용을 금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공공장소서 마스크 착용, 그리 어려운가...

최근 3개월새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12명 경찰행

제주의 한 병원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행패를 부린 30대 남성이 구속되는 등 제주지역에서 3개월 사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된 인원이 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A(35)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발열 검사도 받지 않은 상태로 제주 시내 한 병원으로 들어가려다 보안요원에게 제지 당하자, 소리를 지르며 손소독기를 던지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과거에도 여러차례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사실을 확인했다.

제주에서는 마스크 착용 정부 권

고안이 내려진 5월 26일부터 지난달까지 마스크 착용 시비로 모두 203건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버스, 항공기 등 대중교통 내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비로 인해 6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돼 이중 5명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와함께 병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또 다른 6명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다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이중 4명(구속 1명·불구속 3명)이 현재 검찰로 송치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대중교통 운전자를 협박·폭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10월 12일부터 대중교통, 비행기, 공항·항만, 실내관광시설 등 고위험시설 12곳과 장례식장, 대형

마트 등 사람이 자주 오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방역 수칙을 어기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이상민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꽃자왈 숲 기온 자료 분석

“외부보다 2℃가량 낮아... 천연에어컨”

제주지역 꽃자왈의 여름철 평균 기온이 외부보다 2℃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이하 연구소)는 꽃자왈 숲의 기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꽃자왈 숲이 외부보다 낮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꽃자왈 시험림(조천읍 선홍, 한경면 저지·청수)에 설치한 8개 기상 측정 장치에서 수집한 자료를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간 8월 지역별 기온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산지역(성산기상대)보다 선홍꽃자왈이 1.9℃ 낮았으며, 저지꽃자왈과 청수

꽃자왈은 고산지역(고상기상대)에 비해 각 1.7℃, 1.5℃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름철 기온 차이가 가장 컸던 2016년에는 꽃자왈 내부가 도심 지역보다 2.3~2.8℃ 정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소는 숲의 기온이 더 낮은 이유를 나무의 그늘효과와 반사열 저감 효과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서연옥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연구사는 “제주도 전체 면적의 6%(110km²) 정도에 해당하는 꽃자왈은 지질학적 가치와 함께 기온을 낮추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판단돼 지속적인 보존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제주솔라에너지”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젊은 열정을 찾습니다

2020년 하반기 사원모집

모집기간 2020년 8월 ~ 채용시까지 수시 모집

지원방법 워크넷/이메일/방문/우편으로 지원서류 제출

지원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 및 A/S 기술자
- 경력자 또는 해당분야 자격증 보유자 우대
- 팀단위 협력 파트너(하도급) 별도 상담

모집직종

전기 및 토목 분야 기술자
- 공사/설계/공무/인허가 경력자 우대
- 해당분야 자격증/경력수첩 보유자 우대

주택용 태양광 보조신청 접수

- 한국에너지공단 지원사업 추가접수중
- 주택용 태양광 3kW 공사비 50% 보조
- 자부담금 251만원
- 선정방식 : 선착순 (예산소진시 종료)

지금 전화로 신청하십시오!

태양광은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2019~2020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2020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및 AS전문기업 제주시 노형로 356 www.jeju-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